

李 甲 圭

(人文大學 獨語獨文學科 教授)

I. 현행 대학원 입시제도의 문제점

대학원 중심의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대학원 입시제도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잦은 시험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현재 본교의 대학원 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분리되어 있고 매 과정마다 입학시험과 논문제출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석사와 박사과정에 입학한 연구자들은 매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별도의 공부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전공을 제외한 외국어(영어와 제 2 외국어) 시험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특히 자연계 학과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제 2 외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학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다 올바른 각도에서 고찰하고 숙고해 보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대학원 입시제도의 제 2 외국어 시험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행 대학원 입시제도는 석사과정의 경우 인문계에서만(특수대학원 제외) 제 2 외국어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으며 박사과정에서도 자연계는 자격시험에서만 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현행 대학원 입시제도내에서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4회의 시험중에서 마지막의 1회만 제 2 외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시험은 제도상에도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학습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외국어 습득에 이러한 공백이 치명적인 장애가 되며 나아가서는 외국어 시험자체가 불필요하고 요식적인 부담으로 인식되게 한다. 이로 인해 현재 제 2 외국어 시험의 의미가 퇴색되고 희의되고 있음을 볼 때 일선에서 제 2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II. 제 2 외국어의 필요성(독일어의 경우)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의 과학도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급속히 국제화, 전문화되고 있다. 각국간의 교류가 빈번해짐과 더불어 각

학문분야의 국제적인 교류는 이제 자국의 학문분야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활의 문제로까지 그 의미가 증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외국어를 습득할 필요성이 다른 어느때 보다도 결실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과정이 우리보다 1년 긴 13년이고 고등학교(김나지움)과정에서 3개국어(즉 고전어인 라틴어와 희랍어중 택 1, 현대어인 영어, 불어, 소련어중 택 2) 이상의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습득하게 하고 있고, 실업계 학교인 실과학교(Realschule)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려면 3개국어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국제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충분한 언어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이러한 소양의 육성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대학에 들어와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이 제 2외국어로 된 논문을 참조해야 할 경우에 이를 해독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영어로 번역된 논문을 참조하거나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번역자의 번역에 의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적시성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학문연구에 있어 치명적인 결함과 장애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결함과 장애는 특히 우리가 제 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언어의 국제적인 비중이 클 경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독일어의 모국인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독일의 수출입량(1987년도 기준. 수출 : 5,273억 마르크, 수입 : 4,096억 마르크)은 세계 제 2위이며 유럽공동체 전체 수출입의 약 1/4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인 GNP도 1조 5천억 마르크(1986년도 기준)에 달하며, 1인당 GNP도 2만 4천 8백 마르크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문학, 철학, 음악 등의 인문사회 분야와 예술분야에서 전세계 인류에게 공헌한 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 과학분야만을 살펴봐도 1901년 노벨상이 제정, 수상된 이후 1987년까지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독일인의 수는 총 52명(의학 11명, 물리학 18명, 화학 23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수상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술의 축적과 정부 및 연구단체들의 지속적인 지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현재 독일에는 93개의 자연과학 대학(종합대학 포함)과 122개의 전문대학이 있으며 각 대학의 거의 모든 학과가 자체의 연

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는 별도로 독립된 약 10여개의 연구소들은 자체의 연구계획에 의거하여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막스 플랑크 연구소(Max-Planck-Institut)는 핵연구(플라즈마 융합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갖고 있다.

또한 독일어의 경우, 독일어는 서독과 동독, 오스트리아의 국어이며 스위스에서는 공용어로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와 교역을 추진중인 동구제국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외국어로서 독일어가 상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의 수는 1988년 6월 30일 현재 3,794명(인문계 : 2,340 자연계 : 1,454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학생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고, 현재 그곳에서 공부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언어에로의 지나친 편중과 이로 인한 제 2외국어의 경시는 다원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며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이 아니라 학문적인 면에서도 고립과 편견을 자초하게 된다. 특히 대학원 중심의 대학과 학문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경우 2개 이상의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오늘날 지나친 편주의와 가시적인 효용가치만을 중시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는 이때 적어도 서울대학에서만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할 줄 믿는다.

Ⅲ. 개 선 안

현재 박사과정 자격시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 2외국어 시험을 석사과정 입학시에 실시하여 40점을 합격선으로 하되, 취득성적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추후의 모든 제 2외국어시험을 면제하며, 취득성적이 60점이하일 경우에는 해당학과에서 지정하는 교과목(독일어의 경우 : 독어 Ⅲ, 시사독어 등)을 한 학기간 이수하여 당락(S/U)의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학점취득이 가능할 경우 B학점 이상을 받게 되면 추후의 시험을 면제한다.

타교출신의 석사학위 소지자가 박사과정에 응시할 때에는 입학시 제 2외국어시험을 실시하고, 취득점수에 따라서 위의 규정을 같이 적용한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점으로, 현행 제 2외국어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돕고 시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시 사전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합격선도 40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제 2외국어 공부의 부실과 형식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제 2외국어 시험에서의 사전사용을 금지하고 합격선도 점차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올바른 제 2외국어 교육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